

## 【 해외금융뉴스: 복미 】

## 캐나다 손해보험산업, 수익성 악화 우려 증가

- 캐나다 손해보험산업의 수익성이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악화되고 있으며, 일부 보험사의 파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글로브앤메일(Globe and Mail)은 최근 보도함.
  - 캐나다 손해보험산업은 과거 몇몇 보험사가 파산한 때와 같은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으며,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손해보험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힘.
  - 60년대 이후 캐나다에서는 최소 35개의 손해보험사가 파산했으며, 특히 80년대 초반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많은 보험사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.
- 감독당국은 손해보험사들의 자본량이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리스크 관리능력도 향상되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많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우려를 표함.
  - 손해보험산업의 자본량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나타냈으며, 최소자본량 테스트(Minimum Capital Test)에 의한 지급여력비율은 2007년 말 252%에서 2008년 말 238%로 하락하였음.
  - 캐나다 보험감독당국은 손해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150%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-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, 가계종합보험 등에서 악화되고 있으며, 국채수익률 하락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투자영업이익도 안 좋은 상황임.
  - 자동차보험시장의 25%를 차지하고 있는 온타리오 주에서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흑자부문인 가계종합보험도 풍수해 증가로 인해 고전하고 있음.
  - 또한 보유한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 재투자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투자영업이익도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.

(Globe and Mail, 6/3)